

연말 場勢를 대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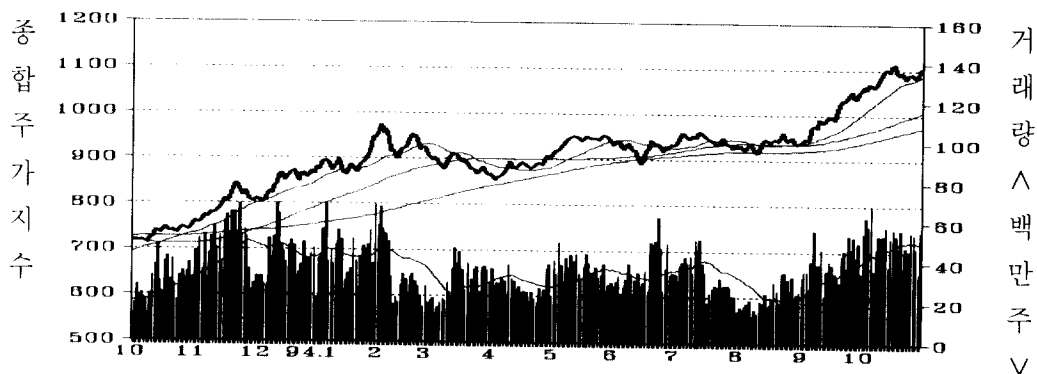
朴鍾坤*

지수 조정 양상 보인 10월

10월 들어 9월의 상승 장세가 지속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1,100 포인트를 넘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8일 지수 1,113.29 포인트를 기록한 후 월 말까지 지수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1,080 포인트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다. 10월 장세의 특징은 주식 시장 상승세를 주도해 온 초우량주가 지수 조정과 함께 하락하고, 개별 재료주의 상승이 돋보였다는데 있다.

종목 장세 구현

즉, 그동안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던 대형 우량주(Blue-chips)는 10월 초순 이후 하락하는 한편, 12월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에 따라 92년 증시 개방시 상승 주도주였던 저PER 주와 최근 투자자의 관심이 되고 있는 M&A 관련주의 상승이 크게 두드러졌다. 한편, 월 말에는 삼성그룹의 그룹 재편 발표에 따라 그동안 강세를 유지하던 삼성그룹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증권·금융 전공.

연말, 연초 장세 대비

11월에는 연말에서 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계절적 상승장세에 대비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약 80%가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연말에는 주로 당해년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투자자의 주요 관심 종목으로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초에는 새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투자 심리를 지배하여 배당락의 조속한 회복과 함께 일반적으로 주가가 고평가(over-value)되는 경향도 있다. 과거의 예에서 볼 때 이러한 연말, 연초의 계절적 상승장은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늦으면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성향이 있다.

11월중에는 이러한 연말의 계절적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반기 실적이 크게 호전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내년초 신·구주 통합에 대비하여 신주가 구주에 비해 주가가 유난히 낮은 종목에 대한 차익거래와 연초 배당락의 급속한 회복 및 낙관적 상승 장세를 대비한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실적 호전주 및 테마주에 투자

최근 장세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중순 종합주가지수가 1,113 포인트를 기록한후 소폭 하락했으나 지수 1,090 포인트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의 투자 심리나 매수세 측면에서 장세 기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그리 길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재상승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랜동안 상승 場을 이끌어 온 고가·대형 우량주의 경우 최근 일시적으로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작금의 장세에 주도주로서의 위치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증시가 다시 상승할 때에는 이들 고가 우량주 및 저PER주의 상승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고가 우량주 및 저PER 주의 비중을 크게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연말, 연초를 대비한 단기적 수익을 위해서는 실적주와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연말에는 실적 우량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테마주는 주로 각종 증시 이슈에 관련된 주식으로 최근에는 남북 관계 개선 관련주 및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주, M&A 관련주,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는 산업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